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 예배합니다 / Build My Life 주는 존귀하신 분 /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같이
대표기도		유준상
*성경봉독	행 13:21~23	임은지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김태동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행 13:21~23)

21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22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난 한달간 우리는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다윗 하연 떠오르는 수식어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God’s heart’에 대해서 묵상함으로써 다윗 시리즈를 마감하려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윗을 표현한 표현이요 (삼상 13:14), 훗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중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다시금 사용한 표현 (행13:22)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다윗에게서 메시아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를 세우셨습니다.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오직 다윗에게만 부여된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인류 중 단 한명에게만 주어진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이전부터 많은 신학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주된 이유로 뽑았습니다. 실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을 신뢰한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 때, 자기가 그를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히11:19) 그의 믿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위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 이름만 살짝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는 다윗의 특징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는 기본 성품 자체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겸손과 순종이라면 모세도 빠지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모세의 겸손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증언합니다. (민 12:3) 모세의 순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와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 한결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나 귀히 여기셨지만 다윗언약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용맹함과 강직함을 듭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참지 못하는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십대때부터 3미터가 넘는 골리앗 앞에서, 사자와 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맹함이라 하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삼손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용맹함이 대단하지만 그것이 다윗만 갖고 있는 독특한 영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합은 아닐까요? 믿음도 좋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용맹하고, 강직한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시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된 아브라함, 모세, 바울 등등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대부분 이런 성품들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주목하고 우리가 가장 닮고 싶은 다윗의 영성의 특징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동행하는 것을 최고로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84편에서는 가장 화려한 곳에서의 천 날보다 하나님 문지기의 하루가 더 좋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했던 사람. 이것이 다윗을 특징지어주는 설명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누리는 부귀 영화와 권세도 그리 중요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도 그는 상관없이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는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분을 묵상하다가 찬양하는 것이 그냥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본모습은 왕도 아니요 강수도 아니요, 목자요 예배자요 묵상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가끔씩 리더의 외로운 마음을 헤아리는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감격하고 심지어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점점 그의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사울이 죽었을 때도, 불효자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그가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산책

그가 눈만 뜨면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그의 눈에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 텐트에 있는 것이 불편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세상 누구도 나를 걱정하는 자가 없는데 다윗은 나를 걱정한다며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메시아 언약은 이 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실수가 많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와 원만한 사랑의 관계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키우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실수가 많았기에 그의 인생에 굴곡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출신도 아니고, 외적으로는 훨씬한 형 엘리압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독교 몇 대 손일 필요도 없습니다. 달변가일 필요도 없습니다. 찬양에 꼭 은사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버리그 나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저 다윗처럼만 하나님을 뜨겁고 진실되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상 질문

1. 지난 한달 동안 묵상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2.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너무나 좋아했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전과 어떤 용기를 주니까?
3. 지금 나와 하나님의 친밀감의 상태를 1-10으로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광고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팀원 모집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김윤환)

찬양팀 - 여 성어, 건반, 일렉 기타, 드럼 (문의: 전하영)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찬양팀 신청 QR



예배팀 신청 QR



수련회 신청 QR

2024년 청년부 수련회

- 기간 : 2024년 3월 8일~10일
- 장소 : Mo-Ranch (2229 FM 1340, Hunt, Texas 78024)
- 강사 : 손상원 목사 (Dallas Baptist University 신약학 교수)
- 회비 : 140불 (신청마감 :3월3일)

창립 51주년 부흥회

- 2월 23일(금) ~ 25일(주일)
- 강사: 노창수 목사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 주제: 예수님, 기쁨, 제자들

전교인 신약 통독

- 이번주는 로마서 11장 ~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미주 다니엘 기도회

- 3/3(주일) ~9(토) 오후 7:30, 장소 : 세미한 교회(달라스)
- 4~8(월~금) : 교회 본당 (Live 영상) 또는 가정(온라인)에서 참여

주일 3부 예배 신설 및 예배시간 변경

- 2024년 3월 3일부터 주일 3부 예배가 신설되면서 예배시간이
변경됩니다.
- 1부 : 8시, 2부:10시, 3부:12시
- EM : 10시, 다음세대 : 10시, 청년부 : 오후 2시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이성민	seongminlee123@gmail.com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라이드팀장	김윤환	michaelsdogani@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AKPC PSALM_

예수산책,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AKPC
마 16:24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